

# “왜구를 물리쳐라” 여수시

## 내달 5일 ‘동동북축제’

이틀간 용기공원·선소일원서 펼쳐져



객 8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북 퍼레이드, 아티스트 공연, 북 체험행사 등으로 꾸며진다.

첫날 행사는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북 퍼레이드’부터 시작된다.

오후 5시 30분 전문 아티스트와 시민 2000여 명은 부영3단지 사거리에서 선소부터 용기공원까지 1.2km를 행진하며 연주와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이어서 저녁 7시부터 용기공원 주무대에서 개막식이 진행

되고, 개막식 후에는 아귀, 감미소, 아나포, 리퍼커션 등 유명 아티스트가 내달 5~6일 여수시 용기공원과 선소 일원에서 펼쳐진다.

‘동동, 왜구를 물리쳐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관람

객 8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북 퍼레이드, 아티스트 공연, 북 체험행사 등으로 꾸며진다.

첫날 행사는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북 퍼레이드’부터 시작된다.

오후 5시 30분 전문 아티스트와 시민 2000여 명은 부영3단지 사거리에서 선소부터 용기공원까지 1.2km를 행진하며 연주와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이어서 저녁 7시부터 용기공원 주무대에서 개막식이 진행

기술과 아프리카 리듬을 배울 수 있는 마스터클래스가 문을 연다.

이후 시민프린지공연과 아티스트공연이 축제에 열기를 더하고, 각종 타악기와 전자음악이 어우러진 동동북퍼레이드를 장식한다.

축제 기간 선소JC공원에는 보조무대가 마련된다. 이곳에 가면 북·드럼경연 대회, 버스커 공연, 북·드럼 체험행사 등을 만날 수 있다.

선소~용기공원 구간에는 동동북 퍼레이드와 동동북퍼포먼스 공연이 들어선다.

어린이상설인형극과 에어바운스, 악기 난타 체험과 길거리 공연을 즐길 수 있다.

행사장에는 스테이크, 샌드위치, 꼬치 등을 맛볼 수 있는 먹거리장터와 수공예품, 액세서리, 유아용품 등을 판매하는 프리마켓도 차려진다.

시 관계자는 “왜구를 물리친 민족들의 호국정신을 북소리로 승화할 계획이다”며 “가족과 함께 행사장을 방문하면 색다른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 곡성군,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설명회 개최



지난 25일 곡성군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읍면 담당자, 농협, 정부양곡 보관창고 관계자 등 53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매입 기간, 매입품종, 중간정산금 지급 및 정산방법,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점 등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추진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내받았다. 특히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자질이 없도록 관계기관별, 담당분야별로 임무를 상세하게 전달됐다. 또한 공공비축미곡

매입 검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 등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공공비축미곡 매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약정 체결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정성 들어 재배한 벼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에 매입품종, 수분, 포대규격 등 사전 안내를 자세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 순천 중앙동 도심 지중화 공사 완료

순천시 중앙동 폐선의 거리 일대의 전기, 통신 등 공중선들이 땅속에 묻혔다. 시는 지난 24일 원도심 상권 거리 황금길, 중앙길 상가 1,800m구간의 공중선 지중화 공사가 40여개의 전신주를 뽑아내고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51억원(한전, 통신사업자 50% 부담 포함)을 들여 진행된 이 사업으로 거미줄 같이 얽혀있던 전선들을 땅속에 묻고 전신주를 뽑아낼 수 있었다.

시는 침체된 원도심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으로 중앙동 상가 지중화를 추진해왔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음에도 실제 공사 진행과정에서는 지상기 설치 장소 확보 등 다양한 이해관계로 난관에 부딪혔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갈등은 순천형 도시재생의 방법으로 해결했다. 사업 초반부터 추진과정에서 시민참여와 설의를 거친 의사 결정을 통해 결국 어렵지만 의미 있는 사업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거리별 상인회와 협의해 비수기를 택해 공사시기를 조정하고, 야간과 오전 위주 작업을 통해 상가 영업 손실을 최소화했다. 공사 관계자와 상인회는 SNS를 통해 공사 진행사항을 수시로 공유하고, 빠른 민원처리를 통해 서로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 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도 갈등은 즉시 현장 토론회를 열고 최선의 방안을 함께 찾아 해결했다.

또한 최종 포장공법도 주민들의 의견이 서로 달라 1:1방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막공법으로 시행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 보성군, 우리마을 가꾸기 발표회 개최



보성군은 지난 24일 보성군청 대회의실에서 ‘꿈과 행복이 넘치는 희망찬 우리마을’이라는 슬로건으로 ‘2019년 우리마을가꾸기 발표회’를 개최했다. 발표회에는 별교읍 월곡마을 외 6개마을 대표 및 주민 1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17년 처음 시행해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발표회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찾아가는 읍·면교육을 시작으로 리더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소액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지역민들의 변화된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발표를 맡은 이장 등 각 마을 리더들은 주민주도형 마을환경조성이라는 취지에 맞게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마을발전 활동에 앞장서 실천하고, 고민한 다양한 마을발전계획들을 심사위원과 발표회장을 찾은 150여명의 주민들 앞에서 선보였다.

이날 평가를 해주신 심사위원으로는 목포대 전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 이종화 교수를 위원장으로 조선대 채종훈 교수, 광주전남연구원 조창완 박사, 한국농어촌공사 정효진 차장이 참석했다.

대회결과와 주민들이 힘을 모아 쌓은 돌담과 유채꽃을 마을대표자 원으로 하여 그려낸 ‘사랑 소망 행복 쌓는 바우꽃마을’이라는 비전이 돋보였던 득량면 기남마을이 1위의 영예를 안았고, 별교읍 월곡마을이 2위, 노동면 영구마을이 3위를 차지했다.

보성=안규일 기자

# 구례군, 임산부·수유부 모유수유 교육 실시

구례군은 지난 25일 보건의로원 다목적실에서 관내 임산부 및 수유부 등 40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아이와 엄마를 위한 모유수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제 모유수유 전문가를 초빙해 모유수유의 필요성, 모유수유와 엄마의 영양, 유방 마사지 등을 교육 후 일대일로 수유문제 상담 및 유방관리, 수유자세와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모유는 아기에게는 면역력 향상, 뇌발달, 알레르기과 변형 예방 등의 장점이 있고, 산모에게는 빠른 산후 회복, 산후 우울증과 유방암 예방에 도움을 준다.

이처럼 아기에게 가장 이상적인 영양공급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초 지식 부족, 산모들의 직장생활 등 다양한 이유로 그 수유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구례=박진호 기자

# 화순군, ‘고인돌 마을 추수감사제’ 개최

화순군이 오는 28일 토요일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유적지에 있는 고인돌 선사체험장에서 ‘고인돌마을 추수감사제’를 개최한다.

추수감사제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한 차례씩 진행되는 ‘고인돌마을 테마 축제’의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9월에 ‘고인돌마을 추수감사제’를 주제로 첫 문을 연다.

추수감사제는 오픈 행사인 ‘고인돌예술제’와 메인 행사인 ‘농경문화 세시풍속 체험’으로 구성됐다. 퓨전국악 공연팀 ANB의 ‘작은 음악회’도 마련했다.

이 직접 체험장에서 제공되는 선시인의 옷을 입고 다양한 장신구로 치장해 미남미녀를 선발하는 콘테스트를 진행한다.

메인 행사인 농경문화 세시풍속 체험에서는 고인돌 시대 농경도구의 중심이었던 토기를 만들고, 다육을 직접 심어 가져갈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추수감사제라는 주제에 걸맞게 인절미 만들기 체험과 사냥대회까지 선사세시풍속을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고인돌 작은 음악회에서는 퓨전 팝 이야기 콘서트, 재즈, 국악

과 팝이 어우러진 대중적이고 모던한 느낌의 음악 공연이 펼쳐진다.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유적지 활용 홍보사업’의 하나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고인돌 시대를 살았던 선사인의 생활과 문화예술을 결합해 화순 고인돌유적의 세계 보편적 가치를 알리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는 사전 접수를 통해 진행한다. 자세한 체험·접수 방법 등은 (재)고대문화재연구원(062-651-3701)에 문의하거나 누리집(www.goda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

www.jepa.kr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번호사) 유관기관 연계로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민적성 지원 및 법률 지원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